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창구 운영 명품 임실N복숭아 본격 출하

남원시, 읍면동 주민센터서 운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시행

남원시는 지난 21일부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시민들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창구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고물가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 지원 정책으로, 남원시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기본 지급액에 5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일반시민 20만원, 차상위 한부모계층은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원을 받게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을 원하는 시민은 카드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선불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포함), 위임장,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남원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한다.

또한 시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오는 7월 29일부

수 후 지급까지 찾아가는 방식으로,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을 발굴해 최대한 신청을 도울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소비쿠폰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소비 진작을 함께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최근 소비 쿠폰 관련 스미싱(금융사기) 문자 메시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는 개별 문자로 소비쿠폰 신청을 유도하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남원의료원,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

5회 연속 최고 등급 획득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시진))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6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5회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평균(정맥내) 치료를 진행한 569기관 4만 5,500건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주요 평가 내용은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 검사 실시율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중증도 판정 도구 사용률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적합한 첫 항생제 투여율 등 총 5개 항목이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폐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나, 기침, 기래, 오한 및 발열 등의 증상을 감기나 독감 등으로 오인하여 치료시기를 놓치면 악화되는 질환이므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은 "앞으로도 폐렴의 진단 및 치료의 질을 향상시켜 폐렴 환자가 적절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소통 나서

남원시는 23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구내식당에서 최경식 시장과 7개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복답임 식사와 소통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소통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진작을 위한



남원시는 23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구내식당에서 최경식 시장과 7개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복답임 식사와 소통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것으로, 시장과 직원 간의 자유롭고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대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 등 업무로 노고가 큰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직원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일상과 업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고, 이번 자리는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와 화합을 증진하는 계기가 됐다.

한 직원은 "오늘처럼 직원 서로를 격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이 시정 운영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형 유통업체 등 통해 전국에 공급



임실군의 대표 농특산물로 당도가 높고,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임실N복숭아가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아 전국 소비자와 만난다.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잡종 출하 시기인 오는 8월 말까지 롯데마트·이마트, 서울 가락시장 등 공영도매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은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임실N복숭아를 전국에 선보인다.

주로 홍도·백도, 천중도 등의 품종이 출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임실포·남작복숭아(거반도) 품종까지 출하되면서 색다른 맛과 형태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270여 농가에 300㏊ 면적에서 복숭아를 생산해 1,600톤을 임실N복숭아 공공 선별장을 통해 엄선, 전국으로 유통할 계획이다.

임실N복숭아는 해발 250~400m의 청정 고랭지에서 재배돼 일교차가 크고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한다

남원시는 상수도 체계적 관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지방 공기업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사업으로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시 전역에 수도관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상수도 고립 여부 확인을 위해 아간시 간대에 작업을 실시했다.

상수도 고립 확인 작업은 해당 구역이 수돗물 공급중단에 따른 수압분석 등을 통해 고립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하며, '상수도 블록시스템'은 급수구역을 세분화하고 구역화해 수돗물 사용량, 수압, 누수량 분석 등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자동화 감시시스템을 말한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설치되는 설비로는 블록단위 별로 유량계, 수압계, 전기·통신 단자함, 원격 감시 설비 등이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는 2029년부터는 자동화 설비를 완비, 운영중인 정수장과 더불어 상수도 관로에 대하여도 자동화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남원시 상수도 시설 전체 설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자동화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게 된다. /남원=김기우 기자

순창장류축제 향토음식

부스 운영자 모집

순창군이 '제20회 순창장류축제' 향토음식 부스 운영자를 오는 8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순창군 내 단체(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식당에 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나 단체는 순창군 청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장류축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이메일 또는 환경위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바가지요금 방지를 위해 판매 가격을 1만 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며, 장류를 활용한 메뉴를 중심으로 부스 참가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장류축제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이다.

지난해에는 총 171건, 약 233억 원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34건(61억 원 규모)이 최종 선정되어 예산에 반영됐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심사체계를 강화해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운영의 질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소통창구"라며, "군민들의 제안이 순창의 내일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작은 아이디어라도 적극 제안해주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마을만들기 사업 신규 대상지구 주민포럼 진행



남원시는 2026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첫 발걸음으로 신규 대상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포럼을 진행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주민을 활용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주민포럼은 2025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마을 그리기 주민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가 진행한다.

대상지는 2024년 생생마을만들기 등

기초단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주생면 부동마을과 동산마을, 대강면

월산마을, 이영면 외지마을로, 총 4곳이며, 지난 22일 주생면 부동마을을 첫 시작으로, 앞으로 각 마을당 총 5회에 걸쳐 주민교육, 주민포럼, 현장학습,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우 기자

임실 N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 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